29CM의 브랜드 저널리즘 사례

Fast campus

WELOVE(컨텐츠), ASK29CM(블로그),
에세이 연재(사물의 시선,
매일 읽는 여자의 오늘 사는 이야기, 매뉴얼 노블 등)

Guide to better choice

29CM 미션 즉 더 나은 선택을 돕는 가이드 역할

Fast campus

선택의 순간에
잠재적 영감 부여

균형감 있는 정보 전달

Special-Order Issue PT Welove
WOMEN ACC MEN HOME FOOD TECH+
Best Event Brand Lookbook
Popular Post
소금집 29CM POP-UP
없어서 못 판다는 망원동 '소금집 멜리'의 햄, 소시지, 베이컨, 치즈를 29CM 단독 구성으로 한정 판매합니다. '수요미식회'에 소개된 바로 ...
#컬처 2018.11.14
29CM STORE : 앤트러사이트 홈 바리스타 클래스
빠르게 커진 한국 커피 시장. 그러나 제대로 나의 취향을 알며 마시는 커피문화는 아직 부족합니다. 나의 커피 취향과 감각을 깨우는 '앤트러사이트 홈 바리스타 클래스'를 만나보세요.
#29CM 스토어 #컬처 2018.11.12
이번 주 갈만한 곳
코끝이 시려와도 예술은 풍성한 계절입니다. 날씨가 쌀쌀해지는 만큼 조금 더 깊이 있게 문화를 경험하고 사색을 즐기는 것도 좋겠어요. 이번 주 갈만한 전시와
#컬처 2018.11.8
이번 주 갈만한 곳
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느끼고 싶다면 북촌을 방문해보세요. 연인과 손잡고 낙엽을 밟으며 걷다, 갤러리에 나란히 멈춰선 채 서정적인 풍경을 눈에 담으면 어때요? 친구들과 함께 프랑스의 낭만 가득한 영화를 봐도 좋고요. 이번 주 갈만한 전시와 영화제를 소개할게요. 2018...

공간이 곧 컨셉인 숍 3

다른 곳과 달리 도쿄는 주로 쇼핑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휴양지, 유적지보다는 느낌 있는 숍과 거리를 둘러보는 것...

#플레이스

31

사랑을 사람만 하라는 법 있나요?

예전에 한 영화에서 본 대사가 있어요. 정확한 구절은 기억나지 않지만 사랑은 하나의 색으로 명명할 수 없고 저마다 다양한 색의...

#컬처

30

#스마트한 의류 관리, 디테일의 한 끗 차이

소매 끝의 작은 주름, 미세한 음식 냄새조차 허락하지 않는 남다른 패션 피플들이 있어요. 그들의 부지런함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...

#쇼핑 가이드 #스타프

29

아티스트를 몰라도 갖고 싶은 음반 3

턴테이블 없는 바이닐 컬렉터가 늘고 있습니다.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라고들 이야기하지만, 순전히 '예뻐서' 사는 사람도 많을 거...

#스타프 #컬처

29

금요일에 읽는 일상의 문장들

서점에 가면 가장 먼저 일본 소설 코너로 갑니다. 큰 사건 사고 없이 순탄하기 그지없는 일본 소설의 매력은 맑은 뭇국 같은 심...

#컬처

26

이번 주 갈만한 곳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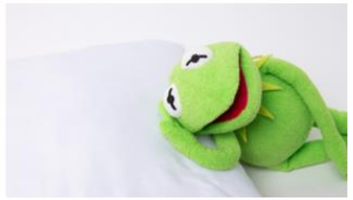
쇼핑과 브랜드, 트렌드에 민감한 당신이라면 동대문으로 놀러 오세요. 29CM와 스타일쉐어가 함께 하는 2018 '마켓페스트'는 ...

#컬처

없는 거 빼고 다 파는 곳 3

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"재미있게 봤다" "나도 이런 걸 모으고 있다" 하는 식의 반응이 많이 들렸습니다. 역시...

#플레이스



우스꽝스럽지만 사랑스러운 친구들

다들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캐릭터들. 이 친구들은 1969년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에서 방송된 세서미 스트리트의 주인공들입니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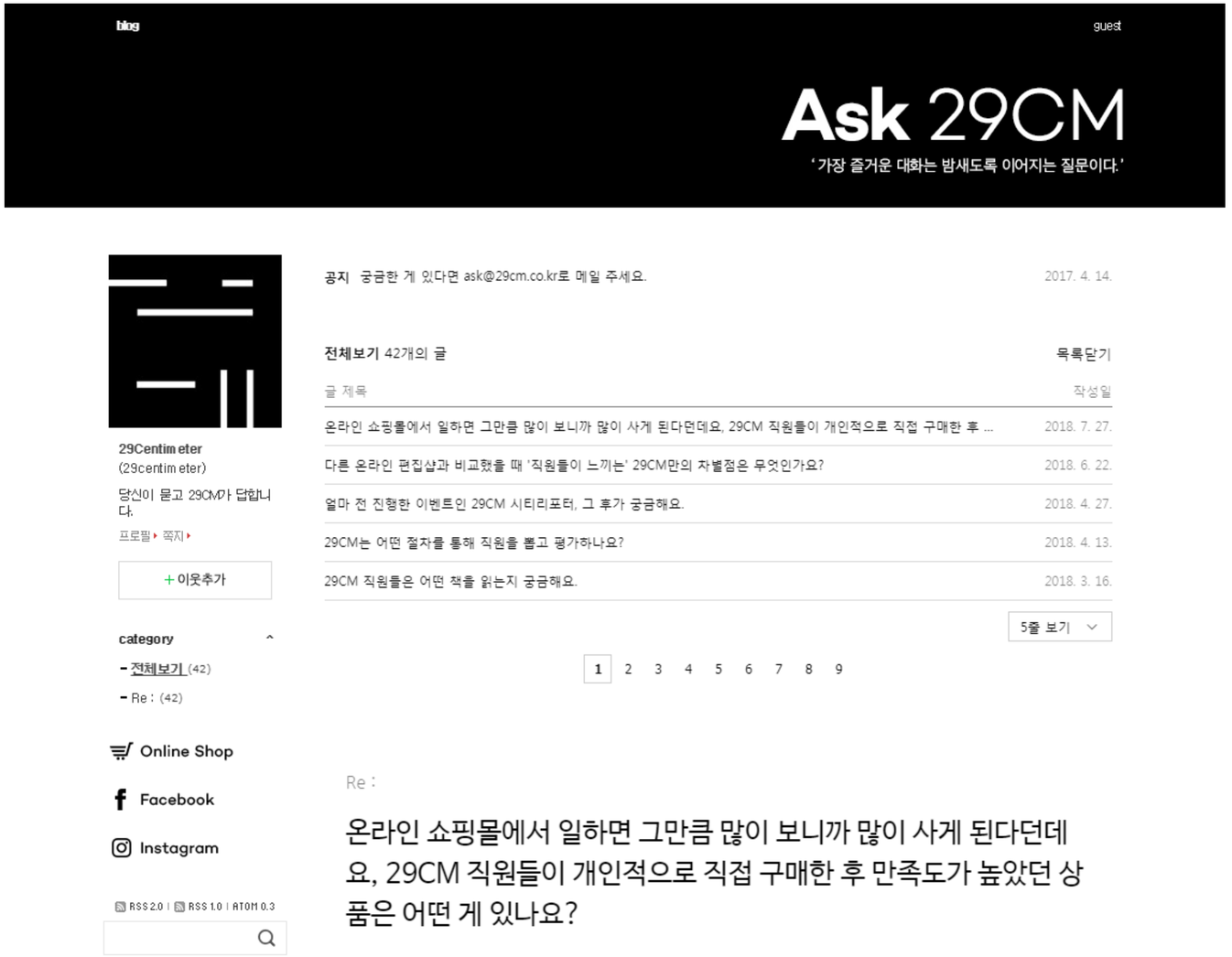
<라라랜드> 팬이라면 꼭 소장해야 할 책

지면으로 영화를 만나는 경험은 색다르고, 또 깊죠. 전 세계 관객과 평단을 사로잡은 사랑스러운 뮤지컬 <라라랜드>를 계간지 <...

이번 주 갈만한 곳

"29CM는 오프라인 공간 없나요?" 지난 7년간 참 여러 번 받은 질문입니다. 그리고 이제는 "네"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. ...

#컬처



Lecture_01

브랜드 저널리즘에 대하여

이유미

Re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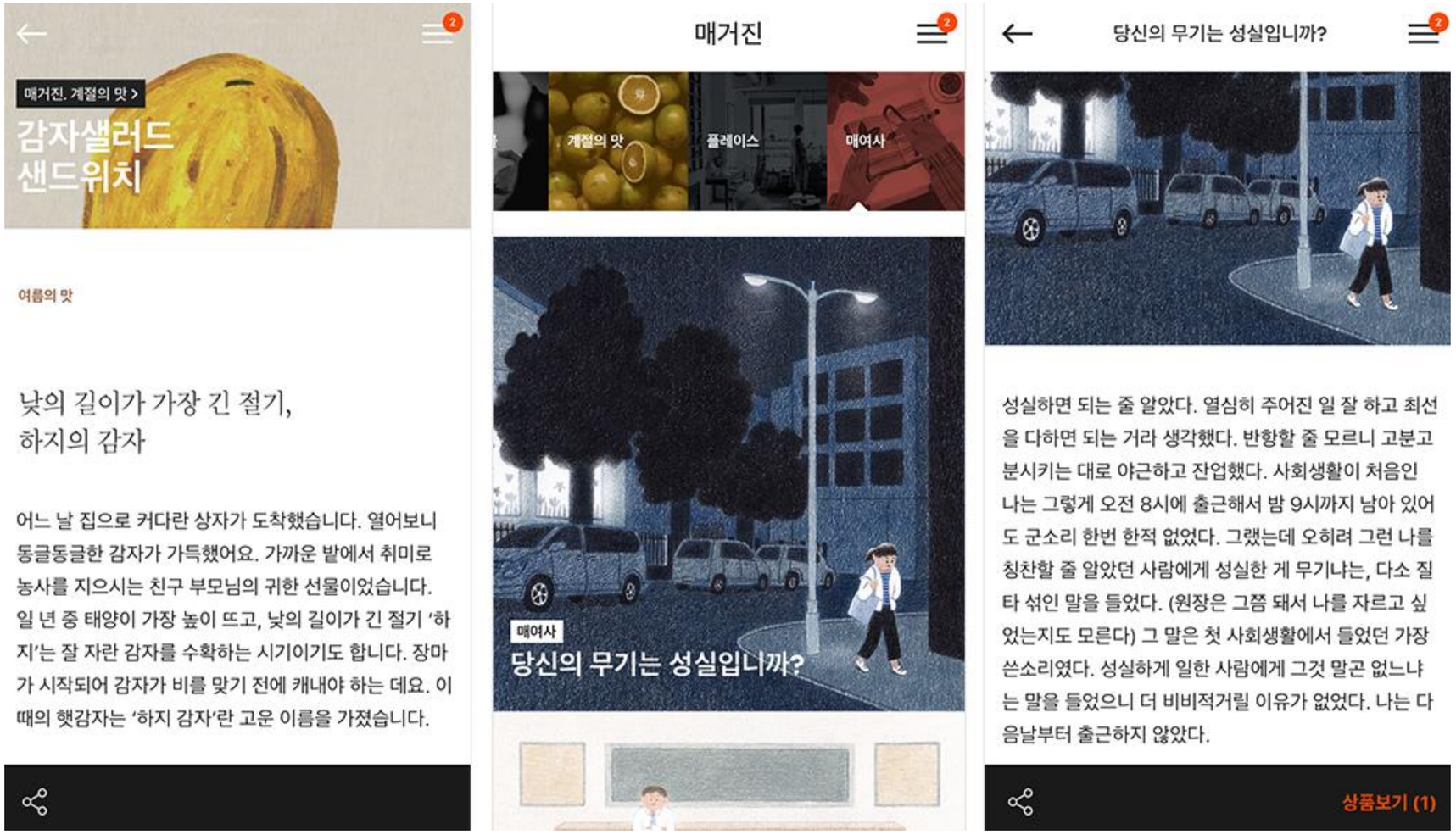
29CM는 쇼핑몰인데 왜 매거진 컨텐츠를 발행하나요?

29Centimeter · 2017. 8. 18. 17:20 URL 복사 +이웃추가

26살 직장인 박수진 님이 질문했습니다.

29CM는 쇼핑몰인데 왜 매거진 컨텐츠를 발행하나요?

29CM에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차별되는 메뉴 중 매거진 채널을 꼽을 수 있는데요. (매거진은 현재 29CM 앱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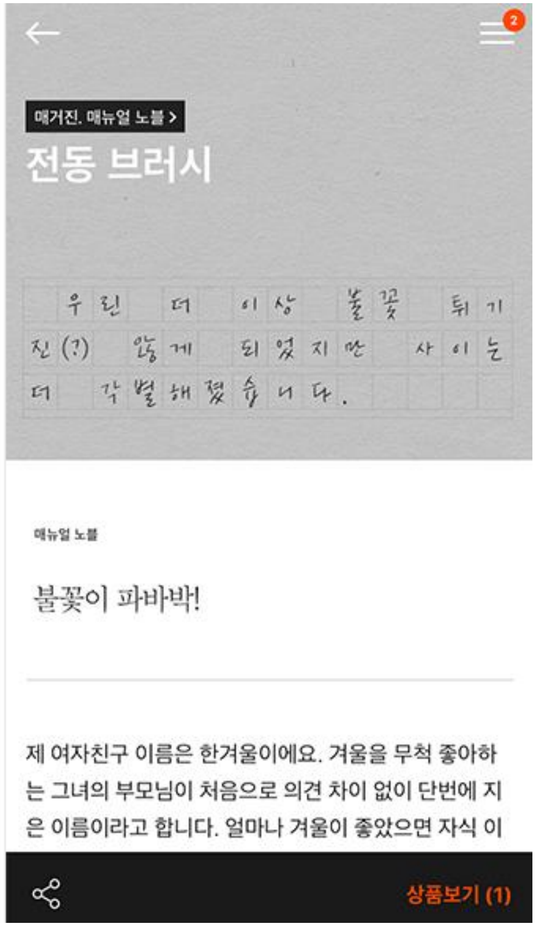
Lecture_01

브랜드 저널리즘에 대하여

이유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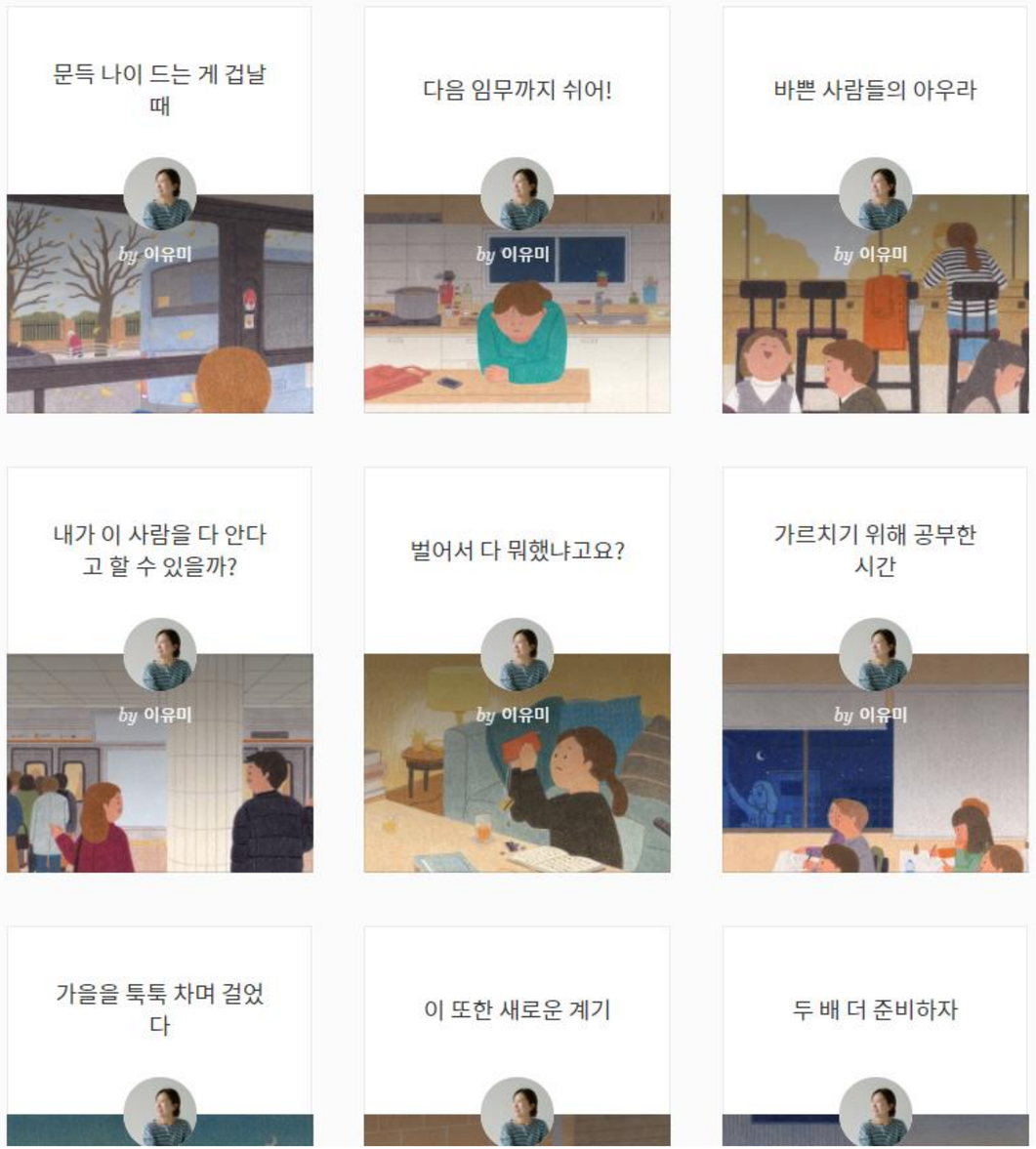
매거진
ALL
브랜드
컬처
플레이스
하프문
No 06

매거진. 컬처 >
씨네바캉스
MOVIE
영화의 바다에서 보내는 휴가
Florida
휴가엔 정답이란 없다. 찌는 듯한 더위를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대로 푹 쉬면 되는 것. 사람 많은 바다 혹은 수영장 대신 시원한 실내에서 쾌적하게 영화를 감상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 3편을 소개한다. 영화의


매거진. 매뉴얼 노블 >
전동 브러시
우린 더 이상 불꽃 튀기진 (?) 않게 되었지만 사이는 더 각별해졌습니다.
매뉴얼 노블
불꽃이 파바박!
제 여자친구 이름은 한겨울이에요. 겨울을 무척 좋아하는 그녀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의견 차이 없이 단번에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. 얼마나 겨울이 좋았으면 자식 이
상품보기 (1)

아이는 낚싯대를 창턱에 가만히 올려놓고 침대에서 내려온다. 눈이 먼다. 미간을 찡그리며 눈을 감는다. 아이는 오른팔을 뻗어서 벽을 쓸듯이 하고는 달려간다.
<전성태 '두 번의 자화상'을 읽다가>

언제부턴가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빨리 잠들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한다. 말의 뉘앙스에 따라 제법 무서울 법한데, 단순히 밤에 자는 잠을 의미하는 것이니 오해 마시길. 인물의 범위를 넓힐 것 까지도 없고 일단 식구 1, 2호부터 빨리 잤으면 좋겠다. 실질적 주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금요일 밤부터 나는 그들이 빨리 취침하길 바란다. 남편과 아이가 자야 나만의 시간이, 구태의연하지만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. 혼자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밤늦은 새벽 밖에 없다는 게 애석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. 그렇다고 그 시간에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다. 그들이 잠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밀린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다. 결



Lecture_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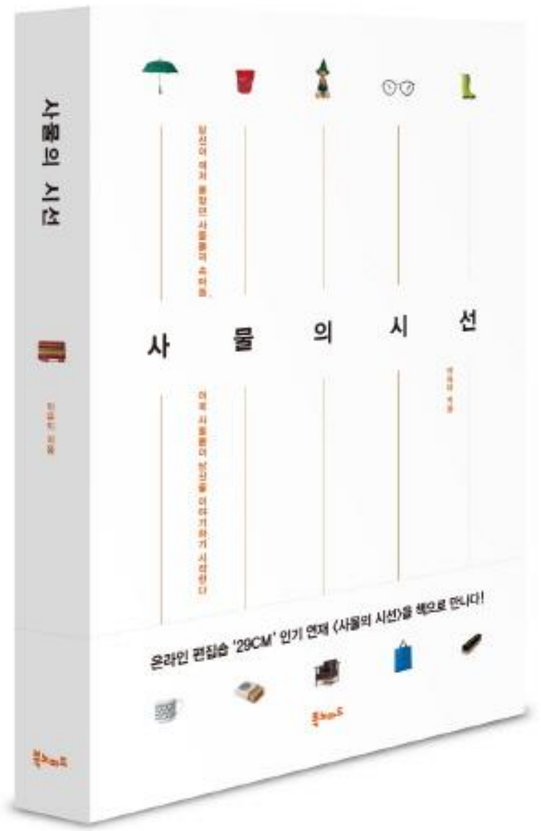
브랜드 저널리즘에 대하여

이유미

Fast campus

구두의 바람 사물의시선

아침잠을 조금 줄여 주세요. 아니, 전날 밤 30분만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건 어떨까요?
여유로운 아침에 나는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. 얼마 전 당신의 다리를 삐끗하게 했던 건 나의 고의가 아니었어요. 정말이에요. 늦은 약속 시각, 허둥대는 당신의 발목을 잡고 천천히 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걸 알잖아요. 당신이 나를 신고 허리를 쭉 펴고 길을 갈 때 사람들에게 받는 시선을 나도 느낄 수 있어요. 그때 빨리 걷거나 뛰면 난 위험해져요. 난 높이가 무려 10센티미터나 되잖아요. 당신 얼굴에 닿는 초가을바람을 긴 호흡으로 느끼며 걸을 때 난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. 여유로운 발걸음은 여자를 빛나게 해주니까요.
휴대폰은 앉아 있을 때만 볼 수 없나요? 나를 신고 종종걸음을 걸으며 당신이 휴대폰을 보느라 깨진 보도블록의 미세한 틈 사이에 내가 끼고 말아요. 복구될 수 없는 상처는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도 속상하게 만들지요. 찌익하고 긁힌 자국이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아 놓습니다. 부디 걸어갈 땐 걷는 것에만 집중해주세요. 당신이 걷는 그 30분 아니 10분 사이에 들고 있는 그 휴대폰에는 별다른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니까요. 그래요, 아예 가방 속에 넣어 두는 게 좋겠어요.
난 당신에게 뜻하지 않는 피로감을 줄 수 있어요. 인정합니다. 그 대신 아름다운 각선미를 주잖아요. 모두를 손에 쥘 수 없듯 하나는 포기해야 하죠. 나를 신고 너무 오래 서 있진 말아요. 긴 시간 웅크리고 있어야 하는 당신의 고운 발에 미안해지니까요.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뭐든 포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처를 주긴 싫습니다. 나를 신고 편안한 미소 짓는 당신을 보는 게 더 좋아요. 특별한 날만 신어야 하는 구두는 되기 싫어요. 나도 당신을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. 일주일에 3일은 어떨까요? 컴컴한 신발장 속은 상상보다 훨씬 답답하거든요. 당신이 나를 신고 걸을 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내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당신은 나를 너무 조금 신어요. 겁내지 말아요. 오히려 자주 신으면 난 당신 발에 꼭 맞는 구두가 될 테니까.
가을보다 여름을 좋아하는 당신이지만 어차피 올 계절이라면, 그 계절 더 멋진 당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요. 난 가을에 더 잘 어울리는 구두니까.
다음 날을 위해 날 미리 현관에 꺼내 놓은 당신에게 고마워요. 내일 당신이 걷는 그 길 또각또각 상쾌한 소리로 내가 함께할게요.



고객이 현재 어떤 것들에
흥미를 느끼는지
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

어떤 상품이 많이 팔리는지
어떤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지

Fast campus

NEXT

브랜드 저널리즘
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정보 인식 툴 = 이야기